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7일 목요일 음 5월 25일 (2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를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5~27℃를 기록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clouds, and sea breeze.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6) and sunset (01:28).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cloudy) and the day after (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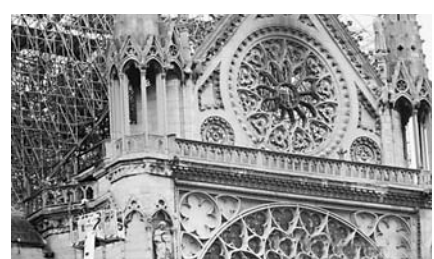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warning levels for food poisoning and UV rays.

월드뉴스

노트르담 대성당 시계 복제품 발견

복원 여부는 미정

올해 4월 화재로 훼손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던 대형 시계의 복제품이 발견돼 복원을 바라는 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불에 탄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때 붕괴한 고딕양식의 첨탑과 지붕 아래 설치돼 있던 폭 6.5m 대형 시계의 복제품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약 4km 떨어진 성 트리니테 성당에서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을 원래 시계를 대신해 놓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시계는 성 트리니테 성당에서 사용되다가 50여년 전에 전자시계에 자리를 내주고 구석의 한 방에 조각상, 낡은 가구와 함께 보관돼 있다가 지난해 말 품목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그는 만약 남아 있는 것이 사진뿐이었다면 시계를 복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추론을 통해 채워나가야 했겠지만, 복제품이 있으니 각 부위의 길이 등을 모두 알 수 있다며 반색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시계 관리 책임자는 복제품은 원품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품

문제는 대성당 복원 계획에 시계 복원을 포함하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FP에 따르면 대성당 복원 비용은 8억5000만유로(약 1조1193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목요일론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부장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스포츠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에 대하여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스포츠인들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제도의 개혁에는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실

체육인 이방인으로 내몰리는 혁신안

수요자가 이를 수용할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 있는 몇몇 지도층이 선진 사례라는 명분을 내걸어 일방적 법령 만들고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그 정책과 제도 이행의 당사자나 수요자가 공감하지 못하면 화이부실(華而不實)과 다름없다.

사실 체육계 내부에서 시대변화와 스포츠 가치인식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조리 극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새로운 진로 모색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누적된 부조리들이 '미투'운동과 맞물리면서 정점으로 치달아 개혁의 대상으로 급부상했고, 정부 차원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러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시스템의 전면 혁신' 1차 권고문이 나왔다.

이러 '국위선양을 유일한 목표로 작동해 온 기존의 국가주의적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폐단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 보장을 토대로 체육특기자제도, 학생운동부 시스템, 소년체전 등의 개혁 및 혁신적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효과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실행'의 2차 권고문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한국체육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공과를 떠나 폐단과 한계에 대한 명확히 인식과 혁신을 요구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낸 체육인들을 이방인의 위치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변화된 시대환경에 걸맞은 스포츠 가치의 인

식 전환이 요구된다면 중증대회 금지나 합숙소 폐지보다는 체육수업의 의무화나 시수의 확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체육교사의 확충과 지도자 배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선수에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학습권이 확보된다는 입장이라면 일반학생들의 최저체력제도 같이 도입해야 체력의 불균형도 바로 잡을 수 있다.

부분의 문제가 극대화된 폐단과 함께 분석이 아닌지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주체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있을 때 혁신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제주미래비전, '다름'을 넘어 '통합'으로



김성호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지난주 일요일 제주시 탐동해변공원에서 '세계사 제주 외국인 축제'가 열렸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준비한 여러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주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 하는구나 새삼 느꼈다. 현재 제주에는 2만48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이에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 및

'시민상담실'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김민정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민들이 고민을 털어주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시민 상담실'을 운영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세무분야 등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 상담실은 지난해부터 '시민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종합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올해에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기 위해 시민 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해 국제 및 생활법률 상담분야까지 추가해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 및 생활법률 등은 선뜻 상담을 받으려 해도 어디를 찾아가

야할지 어려웠으나 이제는 민원실을 찾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민원상담관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세무사, 법무사를 위촉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분야별 상담 요일은 ▷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분야는 월요일 ▷ 지적 관련 분야는 화요일 ▷ 건설 관련 분야는 수요일 ▷ 국제 관련 분야는 목요일 ▷ 생활법률 관련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다.

시민 상담실은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요일에 맞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서도 원하는 날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실에 오기 전에 상담일정을 파악해서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시민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Sunjaeon (선자연)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service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 offering IT solutions.

Advertisement for Gogae-soon (고개속인) men's hair salon.

Advertisement for Donggu Dental Clinic (동구치과 의원) offering dental services.